

광주·전남 복지서비스 공급 전국 하위권

복지비율지수 전국 평균 미달

수요 비해 예산·시설 부족

중앙정부 중심 정책 결정 탓

지역 복지 실태 정확 파악 필요

광주와 전남 지역은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대비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복지 공급 부족' 지역은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광주와 전남을 포함 5곳에 불과했다.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을 위해 지출하는 1인당 예산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사회복지정책이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에 의해서 결정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단순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7월호)에 실린 '지역단위 사회복지 수요-공급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정홍원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의 복지비율

■ 시·도별 복지비율지수

지역	복지비율지수
전국 평균	1.07
강원	1.72
경남	1.38
충북	1.36
대전	1.21
충남	1.06
전북	1.06
인천	1.03
경북	1.03
울산	1.0
경기	1.0
전남	0.97
부산	0.94
광주	0.75
서울	0.69
대구	0.69

(복지수요지수 대비 공급지수 비율 산출)

지수는 0.75로 서울·대구(0.69)에 이어 전국 15개(세종·제주 제외) 광역자치단체

중 3번째로 낮았다.

전남의 복지비율지수는 0.97로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은 1.07로, 복지비율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필요로 하는 복지 수준보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이 있는 '복지 공급 과잉'을 뜻한다. 반대로 광주와 전남 같이 복지비율지수가 1보다 작다면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복지 공급 부족' 상태다.

정 연구위원은 지자체별로 보육·노인·장애인·빈곤 등 4개 복지 분야의 수요지수와 공급지수를 계산해 '복지비율지수'를 산출했다.

복지수요지수는 영유아·노인·장애인·빈곤층의 규모와 복지 서비스 필요도(2014년 각 시군구 시행 '지역사회복지육구조조사' 결과)를 통해 산출했다. 복지 공급은 1인당 복지 예산과 1000명당 관련 복지시설수를 통해 따졌다.

광주의 복지수요지수는 1.72로 광주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어 경남

(1.38), 충북(1.36), 대전(1.2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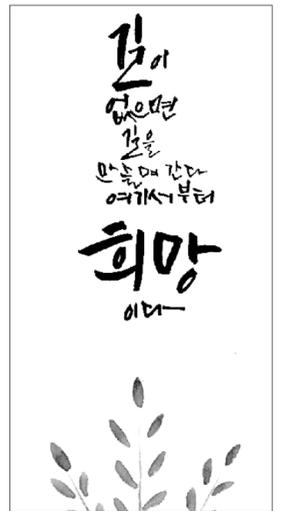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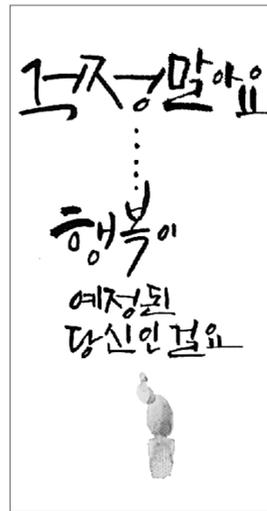
이어 충남(1.06), 전북(1.06), 경북(1.03), 인천(1.03), 경기·울산(1.00), 부산(0.97) 순으로 나타나는 등 복지비율지수는 특별·광역시 지역이 도 지역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전국 군 지역의 복지비율 지수는 1.33, 시 지역 1, 자치구 지역 0.85로 집계됐다. 또 인구 규모가 작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정 연구위원은 "흔히 대도시가 시골보다 복지 예산 수준이 높고 관련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필요한 복지 수준과 비교하면 대도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는 공급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 정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복지예산의 배분과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단위 복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힘들 때 10초만 들여다보세요”

광주 복구, 취약계층 세대에 ‘행복글귀’ 전달

“지금 힘든 건 지나가는 구름이야, 기죽지 말고 힘내.” “꼭꼭 말아주세요, 행복이 예정된 당신인 걸요.”

광주시 복구가 취약계층 세대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를 위해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복구에 따르면 매일 관내 사회보장급여 20여 세대를 선정해 ‘마음이 따뜻해지는 행복글귀’를 방문·전달하고 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사회보장급여 결정 후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세대에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글귀를 제작,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전달하는 서비스다.

이는 취약계층세대에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줘, 생활의 어려움에서 오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녹아들게

하기 위함이라고 복구는 설명했다.

“행복글귀”는 우산동 관내무사회복지관 캘리그라피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제작되며, 앞면 ‘치유글귀’와 함께 뒷면에는 알아두면 유익한 긴급 연락처를 부착해 활용도를 높였다.

복구는 “행복글귀”를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100여세대에 전달했다. 올해 말까지 100여세대에 추가 전달할 계획으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정서적 위안과 행복의 소중함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복구 관계자는 “복지세대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정서적 우울감 해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사회보장급여 최초 단계에서부터 고립감을 해소하고, 주위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데이트폭력 상담 작년 2000건...32% 증가

여성 대상 폭력 27만4226건

가정폭력이 전체 절반 넘어

“피해자 보호 법 개정 필요”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여성들의 상담 건수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2015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의 전체 상담 건수는 27만4226건으로 전년(2014년 26만5792건)보다 8434건(3.1%)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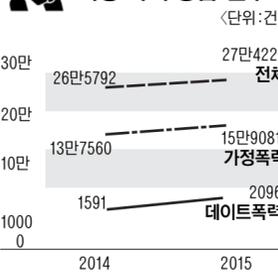
특히 데이트폭력 상담 건수는 2096건으로 2014년(1591건)보다 31.7%나 늘었다.

진흥원은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라는 점에서 가정폭력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뿐만 아니라 법 개정 등으로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15만 9081건으로 전년(13만7560건)보다 15.6% 늘었으며, 전체 상담 건수의 58%를 차지했다.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 18개 센터에서 운영하는 긴급피난처는 지난해 입소자가

여성 폭력 상담 건수



모두 1만175명으로 전년(8754명)보다 16.2% 늘었다.

진흥원은 “전체 상담 증가는 정부의 4대역대 국정과제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보호에 대한 각 부처의 다양한 접근과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지고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많이 인식하게 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성긴급전화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원하는 여성들이 365일 24시간 언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다. 국번 없이 ‘1366’을 누르면 바로 연결된다.

/연혜뉴스



청소년 노동인권 지켜주세요 광주청년·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간협의회는 최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일대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거리캠페인을 진행했다. <광주고용노동청 제공>

광주 동구, 어린이집 신축 예산 6억원 확보

광주시 동구는 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경제계) 보육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구립어린이집 신축비로 6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제계 보육지원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르니보육지원재단과 함께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저출산 해소와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해 공공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경제계 지원비 6억원과 함께 보건복지부 국·시비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모두 15억원을 들여 계림8구역 내 재개발 공공용지 부지(690㎡)에 오랜 숙원사업인 구립어린이집을 오는 2018년

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타지역에 비해 보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교육과 놀이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갖춘 어린이종합복지시설로 건립한다는 목표다.

동구 관계자는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구립어린이집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리 지역 내 육아지원 거점기관인 어린이종합복지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마을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복지 소식

▲인권지표 시민모니터링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내용: 광주시민 전반적 인권의식, 인권침해사례, 광주인권보장제도정책에 대한 평가(점수) 면접 조사
-문의: 시청 인권평화협력관실 062-120

-문의: 광주보조기구센터 062-613-9365
▲차량생활환경교육 캠프
-내용: 발달장애인의 홀로서기
-일시: 8월5~11일 5·18교육관
-문의: 광주장애인부모연대 062-531-4514

▲콜센터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내용: 유모차용 콜센터 30개 지원
-신청: 8월 5일까지
-지원대상: 유모차를 사용하며 신장 140cm 이하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광주근육장애인 여름캠프 '심표'
-일시: 8월19~20일(접수 10일까지)
-캠프장소: 나주중흥골드스파
-내용: 인권강의, 내가 만들어가는 삶, 캠페인, 노래자랑(유료)
-문의: 광주근육장애인협회 062-675-7192

대한민국 모두가 영웅이 되는 그 날까지!

나는 영웅이다

매주 수요일 밤 11시

이용식, 엄영란, 조민희, 변우민, MC/정은아

CHANEL A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